하늘 향해 부르짖는 익명의 영웅들

(역대하 32:16~23)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20.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 향해 부르짖는 익명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향해 부르짖는 익명의 영웅들'
대부분의 영웅들은 전쟁터에서 용감한 행동으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순신 장군도 한산도 대첩이나 노량해전의 현장을 통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이끈 영웅의 이름도 정체도 나타나지 않고 종적도 알 수가 없는 익명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영웅의 경우를 세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선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굉장한 것입니다.
내 이름과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익명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곧 익명의 영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익명의 영웅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익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대군과의 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얻어내는 현장에 히스기야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 왕국 유다의 군인 단 한 사람도 앗수르 군이 쓰러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익명의 영웅으로 살 것을 권장하며 허락하고 계십니다.

익명의 영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으면 모두 익명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고 공감이 안 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니 너무나 신이 납니다. 다만 익명의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익명의 영웅이 되고 나라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열왕기하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성전 생활화를 기준으로 한 다윗의 신앙이 다른 왕들에게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대 왕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역대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산헤립에게 두 번째 모욕을 당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만 히스기야가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전장에는 가지도 않고 승리를 하는 익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었고, 32장은 히스기야가 성전 생활화를 전제로 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생활화는 성전의 평면도를 내 마음에 그대로 반영하여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듯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3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전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의 마음이 영토 확장을 통해 기뻐하려고 했다면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을 곧 영토 확장을 원하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생활화가 이루어지자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과 밀착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 상태가 된 상황에서 앗수르가 침공해 왔고 두 차례에 걸쳐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곤경에 처한 상황과 밀착되어서 그 상황에 대해 구

원을 바라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 상황과 밀착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우리가 앞서 본 6~8절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앗수르의 공격에 압도되었다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찍이 가나안 정탐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열 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며 겁을 먹고 좌절하였습니다. 마음에서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뜻의 약속을 먼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 대군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함성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산헤립의 모욕적인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눈과 귀로 들어온 사실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의 눈과 귀는 낚시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낚아채서 마음이 가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경도 명천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생선을 잡았는데, 무슨 생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서 생선의 이름을 물으시니, 신하들이 명천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생선의 이름을 명태로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육체로 보고 들은 것을 낚시하듯 잡아채서 마음이 가있는 하나님께로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앗수르 침공상황을 받으시고 처리해버리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의 네피림 후손인 아낙족속 거인들을 자신들의 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평강을 누리던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위에서 주무셨던 것과 같고,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차도록 깊은 잠이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눈에는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앗수르의 침공이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눈과 귀로 낚아채서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무르실 일이 되어버립니다.
거꾸로 생각해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면 마음은 앗수르 침공상황에 묶이게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낚시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육체는 낚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낚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완전히 해결해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자멸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쓰러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체 누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이고, 눈과 귀로 낚은 상황을 하늘로 올려 보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전쟁터에서 앗수르 군대는 자신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익명의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 나라 안팎의 상황들을 접합니다. 나라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문제로 시끄럽고, 밖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시비를 걸며 으르렁거리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벌벌 떨어야 하겠습니까?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 대군을 보고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이는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라는 더 압도적인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 땅을 향한 소원이 발동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지, 세상일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시듯이, 그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착하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눈과 귀는 상황을 낚는 낚시 바늘이 되어서 이 상황들을 마음이 가있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나라 안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만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벌어진 상황에 압도되어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기도이며 우상숭배의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허락한 대로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과 귀는 주어진 사건이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는 낚시 바늘이 됩니다. 이

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가 압박하던 상황을 하늘로 올려 보냈듯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 없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익명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남 왕국 군대의 군인들은 단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정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익명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밀착되기를 원하십니다. 100명이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100분의 1과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명이든 100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과 밀착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전체와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을 때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라의 상황이든지 개인적 상황이든지 회사의 상황이든지 건강의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마음먹으신다면 나라가 아닌 우주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할머니가 나라를 구하는 익명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익명의 영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해결에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익명의 영웅이라는 사명으로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착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익명의 영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